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 1. 호바트한인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2. 예배 후 친교 및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 3. 호바트한인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https://hobartchurch.org>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 1.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게 하옵소서.
- 2. 서로를 귀히 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 3. 다음 세대를 언약의 자녀로 신실하게 양육하고, 호바트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호바트한인교회

주일 예배 순서

2026.8.23.

예배안내		* 표는 다같이 일어나서		인도: 김윤호 목사		
주 일		* 예배로의부름		다같이		
오후 1시00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새벽예배		* 경배와 찬양		감사해 시험이 닥쳐 올 때에		다같이
오전 7시 (토요일)				비 준비하시니		
		*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 성시 교독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		다같이
		* 십계명		출애굽기 20:2~11		다같이
		* 회개기도				다같이
주일학교 예배안내		* 은혜의 선언		로마서 5:8		인도자
		* 찬 송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같이
주 일		기도 인도				이광호 집사
오후 2시30분		교회 소식				인도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20		다같이
이번주(23일) 예배위원		설교 말씀		앞서 가시는 하나님, 다르게 사는 백성		인도자
		합심 기도				다같이
기도 인도		찬 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이광호 집사		봉 헌				다같이
예배 안내		* 파송의 노래		예수의 길		다같이
변미혜 권사		* 축 도				인도자
헌금 위원						
정경남 권사						
다음주(30일) 예배위원						
기도 인도						
최태영 집사						
예배 안내						
변미혜 권사						
헌금 위원						
정경남 권사						

2

말씀 노트

오늘 말씀이 삶이 되도록

이번 주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 아래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

📖 이번 주 말씀

하나님께서는 _____ 분입니다.

(작성 가이드: 우리 앞서 사자를 보내어 지키시며 삶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고 다르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 함께 나누기

1. 오늘 설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나 말씀은 무엇입니까?
2. 내 편의나 생존의 불안 때문에 주일에도 쉬지 못하거나 이웃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3.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이번 주간 관계(소문/원수 사랑), 소유(첫 열매/나눔), 미래(우상 단절/순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 이번 주 실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_____ 하기.

(작성 가이드: 거짓 소문을 멈추고 원수의 짐을 함께 들며, 지친 이웃에게 쉼의 자리를 내어주는 구체적인 실천을 해 봅니다.)

🙏 함께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눔을 위한 기도) 참된 안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저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세상의 방식과 결별하여 다수보다 진실을 따르고, 이웃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긍휼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답을 말하려 하기보다, 서로의 마음과 삶을 나누어 보세요”

3

지난 주 설교 요약

샬렘에서 샬롬으로(출애굽기 22:1-31)

시나산 언약서의 흐름 속에서 출애굽기 22장의 판례법규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고의든 부주의든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나 상처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해의 원인을 살피고 정직하게 물어주고 배상하도록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손상된 것을 원래대로 바로잡는 배상을 뜻하는 '샬렘'은 참된 평화와 온전함을 뜻하는 '샬롬'과 동일한 뿌리를 가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정의와 책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지은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죄의 빛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대속으로 온전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샬롬을 값없는 선물로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핑계 삼아 일상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윤리적 책임을 없애 주는 값싼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깨어지고 손상된 관계를 기꺼이 바로잡게 만드는 거룩한 성화의 능력이자 참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지극히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이웃의 유일한 걸음을 담보로 잡았더라도 밤이 오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듯,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고 연약한 이웃의 삶과 최소한의 필요를 세심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물질과 소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과 일상의 은밀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구별된 삶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물질적 손해나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핑계나 변명으로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피해를 입은 이웃의 아픔을 깊이 경청하며 힘이 닿는 대로 손해를 갚고 어긋난 관계와 잘못된 관행을 성실하게 바로잡으십시오. 연약한 이웃의 숨통을 틔워주는 쉼과 사랑의 나눔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샬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 순종의 길 위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하고 풍성한 참된 샬롬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